

중국경제실

(중국)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6.25

1. 확산 동향

- 6월 24일 중국 내 신규 확진 19명(베이징 13명), 신규 무증상 감염자 1명
 - 6월 11~24일 베이징시에서 총 269명의 확진자 발생
 - 베이징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2명(20일), 9명(21일), 13명(22일), 7명(23일), 13명(24일)으로 아직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표 1. 중국 일일 감염 현황(6월 24일, 명)

	확진자	사망자	퇴원자	무증상 감염자 ¹⁾
신규	19	0	15	1
누적	83,449	4,634	78,433	97

주: 1)중국정부는 증상이 없으나 양성 판정 받은 이들을 '무증상 감염자(无症状感染者)'로 정의하고, 4월 1일부터 '확진자'와 구분해 수치를 발표하고 있음. 무증상 감염자는 양성 판정 후 14일 격리되며, 두 차례 핵산 검사를 통과해야 격리 해제됨(격리 기간 중 증상 발생 시 확진자로 전환됨).

2)누적 무증상 감염자는 현재 격리 관찰 중인 환자 수 기준임.

자료: 중국 위건위(http://www.nhc.gov.cn/xcs/yqtb/list_gzbd.shtml)

2. 경제적 영향 및 정부의 대응

- [베이징시] 베이징시는 단오절(6월 25~26일) 휴일 기간 방역관리 강화¹⁾
 - 관광지·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장소는 수용가능 인원의 30% 이하로 방문 통제
 - 농산물시장·마트·음식점은 방문자 체온 검사 철저히 실시, 환기·소독·청소 작업 강화
 - 버스·지하철 등 시내 대중교통 방역 조치 강화, 항공기·기차·버스 터미널의 검역 강화
 -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베이징 밖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독려, 베이징시 밖으로의 택시·차량공유서비스 차량(顺风车)·여객버스 운행 중단 지속
- [수출품의 내수 전환] 중국 국무원은 6월 22일 수출용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关于支持出口产品转内销的实施意见) 발표²⁾

1) 人民网(2020. 6. 24), 「北京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领导小组召开专题会议部署抓好端午假期疫情防控工作」

2) 中国政府网(2020. 6. 22), 「国务院办公厅关于支持出口产品转内销的实施意见」.

- 내수 판매로 전환 시 필요한 CCC인증 절차 간소화 및 처리 시간 단축
- 내수 판매로 전환하는 무역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신청 방법 안내·서비스 제공
- 수출용과 내수용 상품의 생산라인·표준·품질이 동일(三同)한 제품의 생산 장려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수출용 상품 판매 전용 코너 마련, 주요 보행자 거리에 수출용 상품 판매 촉진 활동 추진
- 신형 인프라 건설, 신형 도시화, 중대 프로젝트 등에 수출용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
- 내수 판매로 전환한 기업에 각 금융기관의 지원 독려, 대외무역발전자금을 활용해 내수 판매 전환 기업에 교육, 홍보, 정보서비스 제공

3. 기타

- [수입금지] 중국 해관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이유로 미국 최대 육류가공업체 타이슨(Tyson), 브라질 아그라(Agra), 영국 튜립(Tulip)의 일부 육류 수입을 금지함.³⁾
 - 미국 타이슨社의 경우 최근 아칸소주 공장 노동자의 13%(481명)가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이는 등 집단감염 현상이 심해져, 중국 해관은 6월 21일 아칸소주 공장에서 생산된 냉동 닭·오리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이미 항구에 도착한 제품은 압류 조치함.
 - 타이슨 본사 대변인은 WHO, CDC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품으로 전염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음을 주장
 - 타이슨 중국법인은 △ 중국 소비자에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하고 △ 현재 타이슨 상표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는 모두 중국 내에서 공급받은 제품이기엔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설명
 - 영국 튜립社, 브라질 아그라社는 자사 축산제품 공장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아 자발적으로 자국 정부에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전했으며, 영국·브라질 정부가 중국 해관에 이를 통보해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함.

3) 每日经济新闻(2020. 6. 22), 「海关总署暂停部分美国泰森禽肉输华, 泰森中国紧急声明: 目前在售鸡肉产品均来自国内自有产业链」; 新浪财经(2020. 6. 23), 「海关总署: 英国、巴西2家肉企自愿暂停对华出口」.